

韓國上流住宅序論

鄭寅國

弘益大學校 教授
韓國建築家協會長
(上博)

금번 筆者는 오랜동안 文化財委員으로 있으면서 調査研究한 內容을 다음 目次에 의하여 엮어 200枚 가량의 實測圖面을 곁드려 冊으로 펴낸바 있습니다. 이 글은 著 5章의 序論에 妥當하는 部分임을 밝혀 둡니다.

目 次

第 1 章	木造建築總說
第 2 章	配置計劃論
第 3 章	木造架構論
第 4 章	平面 및 立面構成論
第 5 章	上流住宅建築論

1. 住生活本質과의 關係에 對하여

韓國의 上流住宅은 一般庶民住宅이 너무 原始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比較하여 볼 때, 상당히 發展한 住宅樣式과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그 住居 內容을 分析하여 보면, 極히 停滯한 住生活 狀態에 머물러 있었고, 그대신 住生活의 本質은 아니지만 뒤에 敷衍코져 하는 다른 生活의 側面에서는 不均衡하게 發展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住生活의 本質은 食·寢의 두 機能이 基本이 되는 것이며, 이 基本機能은 原始住宅에서는 1室 또는 2室 정도에서 混合營爲되던 것이 점차 人類社會文化의 發達에 따라서 다른 여러가지 機能이 分化處理되며 더욱 더 文化의 生活의 程度는 더해지고, 이 基本住生活 機能은 完全히 獨立된 空間을 占有하게 된 것이다. 韓國의 住居形式과 西歐의 좀더 進化되었다고 認定되는 住宅과를 견주어 그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住生活 本質만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根本的差異를 들 수 있다. 즉 客室이 用途別 構成인데 比하여 點有別 構成인 것의 差異, 各室 組合形인데 對해서 各室 分割形인 差異, 行動面이 數段處理인데 對해서 同一平面 處理인 것의 差異등을 들어 分析하는데 勿論 嚴格한意味에서 地方的 特色이나 經濟與件을 考慮할 때 위의 住居樣式의 어느 것이 더 合理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가령 混用途와 單用途의 경우에서도 經濟事情이 뒤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混用途室이 몇배 合理性을 띄었다고 생각되며, 家具什器 등속은 여기에 알맞도록 고안되어 利用되고 있을 때는 더욱이 合理性은 倍加되는 것이다. 또한 家族制度, 生活方式, 風習등이 西歐와는 全然다르게 이루어진 한국에서 住居는 이에 適應되도록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住生活의 本質만으로 取扱될 性質은 아니다.

그러나 個體로서의 人間生活을 누리는데 어떤 방식이 보다 合理的이며 보다 높은 文化生活에 가까우냐 하는 點은 食·寢의 두 基本機能을 制定의 基準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余他의 個個人的 集合體인 家族이 家庭內에서 行하는 共同生活部分이라든가 社會生活이 家庭에 浸透되어 形成된 空間과의 關係는 역시 附隨된 性質로 간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上流住宅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李朝時代의 兩班階層의 住宅을 指稱한 것으로 그들의 社會

的 地位와 生活相을 窮知하기 위하여 當時의 階層 構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兩班은 最上級の 社會階級으로서 이른바 士農工商의 首位에 꼽히는 士族에 해당한다. 儒學을 業으로 하고 아무 制限없이 官僚로 昇進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실지로 중요한 官職과 諸般特權은 모두 이들이 獨點한 바 였으며, 한편으로는 名敎와 예법을 謹守하는 社會의 指導의 階級으로서의 精神的 의무가 있었던 것이니 그 가운데는 자주 大官에 任命되어 官僚로서의 特色이 짙은 경우와 學德을 쌓아 儒者로서의 特色을 主張삼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이 官僚로서 혹은 上級の 社會階層으로서 權力에 參與하는 지배층인 同時에 知識層이 있음에는 다름이 없다”.

위와 같은 신분으로 넉넉히 짐작이 되는 것은 비록 兩班이 地方에 隱居하기 위한 住宅이라 할지라도 한 聚落의 士豪의 敎化中心의 役割을 하여 왔기 때문에 住生活의 基本이 아닌 다른 여러 잡다한 生活機能이 加味되어 왔다. 여기에 논의 對象이 되고 있는 몇개의 上流住宅의 例에서 常任空 間의 面積과 다른 부분의 古有面積比는 다음 表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常任面積은 平面에 「방」으로 表示된 온돌방 만으로 마루방, 고간, 헛간, 부엌 등을 除外한 間數이다.

住居名稱	面 積		間數	比	비 고
	(坪)	(間)			
安東養眞堂	100.35	44	14	0.32	
安東忠孝堂	102.76	48	15	0.32	
禮安李氏宗家	42.53	25	7	0.28	孝子亭別途
義城金氏宗家	117.09	51	10	0.20	
安東臨淸閣	110.29	51	16	0.31	君子亭別途
江陵船橋莊	74.19	54	19	0.35	活來亭別途
月城孫東滿氏	70.46	30	8	0.27	
永川鄭在永氏	65.34	30	7	0.23	
義城金東周氏	32.23	20	7	0.35	
井邑金東洙氏	137.43	73	15	0.21	
慶州崔植氏	61	22	22	0.36	사랑채 포함
求禮雲鳥樓	112.47	55	17	0.31	
月城香壇	69.44	38	10	0.26	
平均				0.29	

余地機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接客 敎化部分으로서 사랑채의 대청마루, 儀禮 接客의 極히 使用 頻度가 적었으리라 생각되는 안채대청마루, 周 邊을 圍繞하고 있는 士豪의 用途로서의 收藏部分 卑屬處所등을 들게되며 相當한 面的 比例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住生活의 文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衛生施設은 전혀 원시적인 狀態를 벗어나지 못한 點은 注意할 事項이다.

2. 上流住宅에 끼친 影響要素

韓國의 上流住宅은 주택의 正常的인 發展過程을 밟지 않고 特異한 形成過程을 거친 것을 特記해 야 될 것 같다. 住宅은 그 地域의 特性에 따라서 생긴 몇개의 基本型이 生活樣式과 文化水準의 向上에 따라서 進化해 나아가기 마련인데 庶民住宅은 이 漸進의 系列에 順次로 適應해 가면서 發展되어 온 것이지만 上流住宅은 雜多한 影響要素가 任意로 作用하여 特殊한 住宅構成을 하고 있다.

첫째 兩班階級들이 權力機關에 參與하면서 얻은 宮中生活의 經驗이 私家建築에도 影響을 준 事實이다. 뒤에 住宅類型과의 關係에서도 論하겠지만 韓國住宅에서 대청마루는 기후관계를 감안할 때그리 큰 用途를 遂行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庶民住宅에서는 退마루形成 또는 多用途로 1間程度이든 가 南쪽 地方으로 가면서 多少 넓어지는 傾向이 있는데 上流住宅에서는 대청마루 中心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는 宮殿建築(交泰殿, 康寧殿, 昔御殿, 延慶堂, 慈慶殿등)에서 寢殿內의 政事를 兼하는 目的으로 만들어진 大청 中心平面이 私家에 까지 延長된 것으로 해석된다. 勿論 이러한 平面形의 必要性은 上流住宅이 그 地域社會에서 行한 役割로 因해서 士豪의 中心勢力의 本據地로 또는 儒敎指導層의 敎化中心處로 또는 社交에 必要한 處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儒敎精神에 立脚한 生活風習의 影響은 가장 큰 것이었다. 儒者선비들의 孤高한 生活態度는 때로는 世俗의 榮華를 敝履같이 생각하여 質朴檢素하게 物慾을 超脫한 環境에서 生活하기도 하였지만 權力과 指導層으로서의 위세를 體面이라고 생각하여 豪華스러운 住居를 營爲하였다. 그러면 서 그 風習은 유교의 또 다른 面인 家父長의 인 家

族制度, 祖先崇拜, 冠婚喪祭의 礼敎와 儀式重点生活, 철저한 階級意識의 思考方式 등이 住居生活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 單的인 表現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으니 住居堅地內에 祖先을 모신 祠堂이 반드시 있는점, 안채의 큰 대청마루는 主로 冠婚喪祭의 儀式을 위하여 쓰이고 있던 점, 身分에 따라서 철저히 居處를 달리한 點들을 들수있다. 그런 中에도 家族生活의 中心이 되는 夫婦生活은 儒敎思想의 特殊性에 따라서 奇異한 環境속에 處해 있었다. 이 間의 事情을 前揭 韓國史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儒敎는 從順을 婦女의 最高의 美德으로 삼고 貞節을 婦女의 生命과도 바꿀수 없는 것으로 여기어 夫婦關係는 父子 君臣關係에 匹敵한 것으로 생각하여 三從의 敎義가 強調되고 女必從夫의 牢固한 觀念에 따라 妻는 夫를 「家長」이라고 불렀다. 또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이른바 「내외」라고 하여 居家하여서도 至親이 아니면 男性과의 面接會話를 피하고 婦女의 社交는 惡德視되었으며 본래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類의 不自然한 儒敎의 가르침을 墨守한 陋習이 있어...”

십지어 「太宗實錄」에는 夫婦別寢을 下令한 事例도 있다하며, 실제로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에 의한 弊習은 住宅平面에 具體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즉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区分됨은 勿論이요 夫婦生活에 있어서 어떤 節制와 不自然스러움을 避할 수 없도록 室의 數와 配置는 考慮되어 있다. 상당한 규모의 上流住宅에서도 子女나 考母의 居處로 別堂을 두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左右로 2箇의 온돌방 만으로 大家族制度로서의 直系家族間의 生活이 영위되었음을 생각할 때 個別의 生活의 프라이버시와 自由스러움은 原始住宅의 狀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짐작하게 된다.

셋째로는 地域社會에서 行한 中心的 役割이다. 여기에 収録된 많은 上流住宅은 宗家가 많으며 李朝時代의 親族宗法制度는 이러한 住宅의 特殊性을 多成하게 되었다. 이때의 聚落은 대부분 同族村의 性格을 띄웠고 그 中의 宗家는 이 地域 社會에서 經濟的 自衛協同體의 中心이 있다. 이와같은 同族村이 한국 聚落의 特徵이되어 있었음을 韓國史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家族制度를 地緣으로 하는 集團으로 「同族村」이라는 것이 있으니이

것은 同族一門이 集團村落을 形成한 經濟적, 自衛的인 相扶相助의 協同體로서 大家族의 延長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同族村의 數는 西紀 一九三三年 現在로 三十戶以上 村이 七千八百餘, 五十戶以上이 約 四百을 헤아리고...” 라고하여 이미 상당한 移動이 進行된 時期에 이와 같은 숫자라고 하면 大家族制度에 의한 族長型態가 強하게 維持되던 社會에서는 더욱 그 數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廣大한 地域에 자리잡은 上流住宅領域은 모든 社會生活의 焦點의 役割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사랑채의 넓은 中庭과 必要以上으로 廣大한 大廳마루는 地域社會의 社交, 敎化集會의 廣場이며, 많은 광은 周邊의 奴婢의 處所와 더불어 經濟生活에서의 支配的地位를 意味하였으며, 別堂建築을 中心한 一廊 역시 한 고을의 東軒의 役割을 하였다.

넷째로 上流住宅의 規模는 일찍부터 法典으로 身分에 따르는 制限을 加하여 왔다. 經國大典(A. D 1469)과 大典會通(A. D 1865)에 기록된 間數의 制限은 다음과 같다.

大君 60間, 君 公主 50間, 翁主 宗親 2品以上 40間, 3品以下 庶人 10間, 또 世宗 22年(A. D 1440)의 間閣尺數는 다음과 같다.

大君	君, 公主	翁主宗親2品以上	3品以下	庶人
60間內	50間內	40間內	30間內	10間內
樓 10間	樓 8間	樓 6間	樓 5間	樓 3間
正寢翼廊	尺數大君	正寢翼廊	尺數2品	間閣
梁長10尺	과同一	梁長 9尺	以上과	梁長 7尺
行長11尺		行長10尺	同一	行長 8尺
柱高13尺		柱高12尺		柱高 7尺
其余間閣		其余間數		樓高12尺
梁 9尺		梁 8尺		
行 10尺		行 7尺		
柱 12尺		柱 高 7尺5寸		
尺 18尺		樓 高 13尺		

그러나 이러한 間閣尺數制限은 初期에는 준수되었으나 宗親들의 세도가 커지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더우기 後代에 이르면서는 양반계급의 경제적 몰락과 더불어 庶民에 이르러서 양반층의 住宅을 본따는 경향에서 이러한 制限은 間閣에 이르기까지도 全然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暗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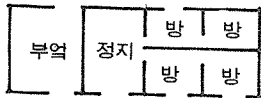
裡에 이와같은 尺數限度는 韓國住宅規模를 倭少케 하는 規準으로 되어 大部分의 住宅은 剛一的 性質을 면치 못하였다.

3. 上流住宅原型 追求에 對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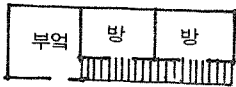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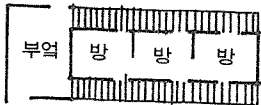
韓國의 住宅類型 分類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行하여져 왔다. 대개 日人들이 行한 雜文的性質의 論文에서 나타나 있으며 全國의 住宅類型을 5 내지 6으로 分類하고 있다. 즉 아래 圖表와 같이(第1圖)北鮮型, 西鮮型, 京城型, 南鮮型으로 類別하고 있다. 이 名稱을 다시 改稱하여 威鏡型, 西北型, 中部型, 서울型, 南部型이라고 할때 이미 그 뒤의 연구에서 指摘되다 시피 소위 西鮮型이 보편적인 平面型으로 되어 있어 다른 類型은 여기서 기후조건에 따라서 變化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庶民住宅의 原型은 어떤 開城地方의 良家의 平面型등에서 쉽게 찾게 되며(第2圖)이는 좀더 소급해 올라가면 1室 또는 2室型態의 原始住宅型인 것이다.

제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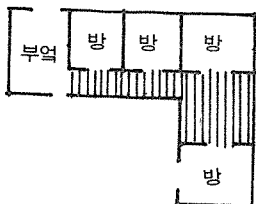
함경형



서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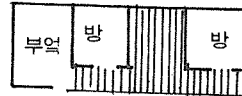
중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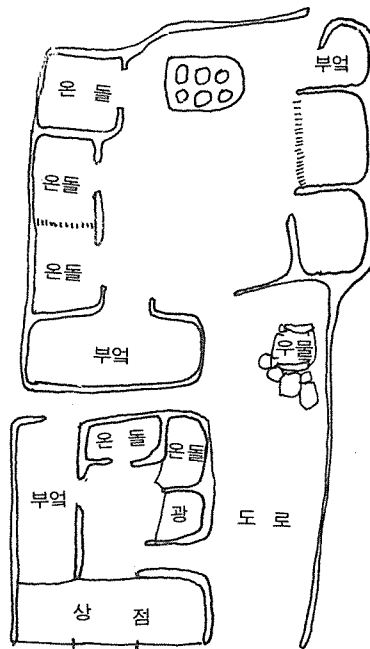
서울형



남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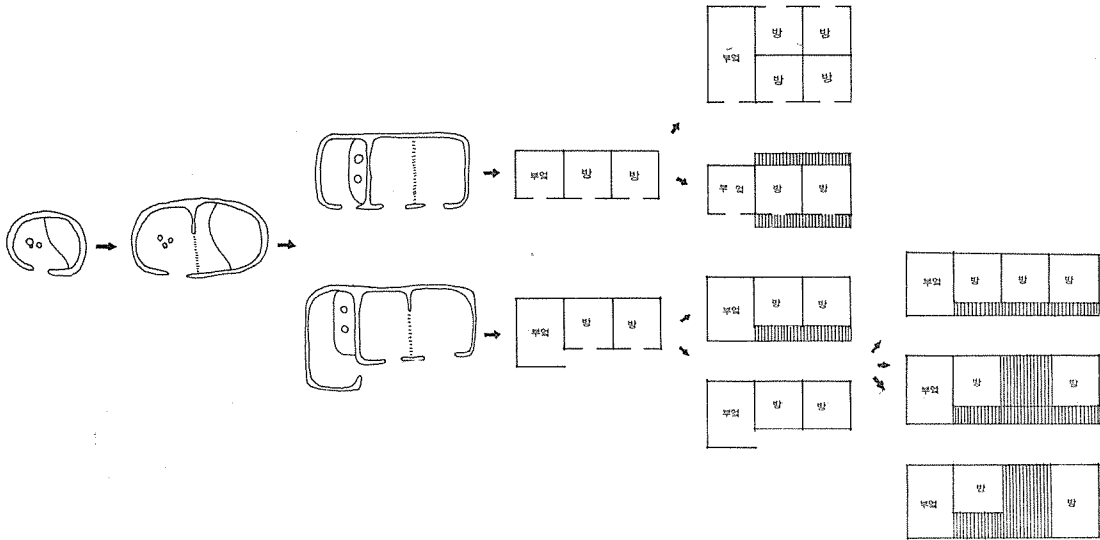
제 2도



이 平面型이 韓國住宅의 原型이라는 事實은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진 오늘에 있어서도 所謂 西鮮型이라는 平面이 特히 慶南北地方 全域에 걸쳐 散在해 있는 事實과는 反對로 南部型은 慶南北보다는 全南北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實情이며 이 名稱이 表示하는 것 같이 명확하게 形成 分布 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 數的으로 그 지방에만 많이 있는 平面型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단지 명확하게 파악되는 事實은 原始住宅에서 一般型이 形成되는 過程을 다음 圖表같이 說明할 수 있다. (第3圖)

고유한 發展을 하여온 民間住宅에 原型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서울型 平面이 全然 이 發展系統을 따르지 않고 特異한 房配置인 것이다. 궁전의 寢殿建築과 民間住居는 항상 서로 긴밀한 引力關係가 있어 固有한 民間住宅形式은 宮殿에 導入되기도 하며 다시 궁전의 寢殿은 民間住宅形式에 適用되기도 하면서 특수한 發展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常例에 벗어나지 않고 韓國의 서울型住宅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全然 系統을 달리하는 것은 政廳에서 비롯된 宮殿寢殿이 그대로 民間住宅으로 옮겨져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上流住宅은 두개의 明確한 類型을 固守하고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一般住宅의 原型이라는 並列形式의 平面形이고 다른 하나는 宮殿建築에서 파생한 卍字形 平面形이다. 여기에 調査 實測한 上流住宅의 平面을 이 두 類型으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 表와 같이 民間建築의 原型인 前者에 속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宮殿住居가 크게 影響을 주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一般으로 上流住宅의 原型은 宮殿 寢殿에서 緣由한 듯이 말하고 있는 점은 잘못이며 어디까지나

4. 上流住宅의 優秀性에 對하여

平面上的 固陋한 性質과는 달리 上流住宅은 技法 意匠에서 近代性과도 相通되는 많은 優秀性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로 平面上的 多目的의 性이나 融通性으로 이는 韓國住宅의 基本特質이다. 앞에서 指適한 바와 같이 이 性質은 生活의 本質로 보면 極히 妥當한 生活相이며 不合理的하다고도 생각되지만 住居保有의 狀況이 經濟事情으로 如意치 못한 우리나라 形便에서는 建築空間의 効用性으로 불배는 妥當한 方法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서 特記해야 할 點은 中庭의 機能上 役割이다. 上流住宅의 中庭은 대부분 狹少하여 庭園의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住宅은 安東義城金氏宗家, 安東臨淸閣, 月城 香壇등이며 이 경우 中庭은 房의 한 부분에 不過하다. 흔히 近代住宅에서 말하는 内外空間의 相互浸透性이며 대청마루의 開放된 空間과 서로 어울려서 上流生活의 中心이 되어 왔다. 平常生活에서는 上下의 意見傳達 交換의

장소로 來客의 接近向方으로 共同生活의 場所로 쓰여 졌으며 特別한 冠婚喪祭때는 式場으로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中庭의 性質을 閉鎖의 空間處理의 한 產物로만 取扱한다든지 多目的인室의 機能을 들어 韓國民의 애매모호한 性質을 낳게한 生活의 한 断面으로만 보는 觀點은 큰 誤謬이다.

둘째로 平面上으로나 構造上 立面上에 나타나 있는 徹底한 規格化를 들어야겠다. 平面上의 規格化는 間이라는 概念으로 明確하지만 構法上의 必要가 規格化를 強要하며 立面上으로 多様な 妙味와 雅趣를 자아내고 있는 例는 許多하다. 土壁에 窓이나 出入口를 내는 경우 몇가지의 規格化된 문틀을 機能要求에 따라서 配置하는 方法은 構法上으로 合理的일 뿐 아니라 素朴하고 純粹한 이 배치는 立面上으로 新鮮한 맛을 준다. 이와같이 平面上의 間의 概念과 窓門크기의 規格化는 韓國建築의 優秀性中 가장 두드러진 部面이다.

세째로는 意匠上의 優秀性이며, 外觀處理는 群으로서의 建築造形과 아울러 個別的 細部手法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의 住宅에 못지 않는 卓越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群으로서의 處理手法에서는 언제나 主從의 關係가 確實하며 水平과 수직感은 妙하게 交叉되어 調和를 이루고, 기둥과 窓의 區副線은 和音된 音樂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와같은 性質이 눈에 띄게 보이는 住宅은 安東義城 金氏宗家의 接近路에서 부터의 外觀 月城香壇의 遠景등에서 찾을 수 있고 기둥과 窓配置의 妙味는 어디서나 보게 되지만 特히 安東臨情閣 正面, 江陵般橋莊正面, 安東義城金氏宗家側面, 安東忠孝堂西側面등은 가장 아름다운 外觀을 보여주고 있다.

細部手法에서는 窓살무늬의 아름다움은 勿論이고 板門 板壁의 거칠면서도 세심새 있는 縱線, 난간살, 연등天井, 必要한 높이대로 任意로 건너 지른 中朽의 橫線, 처처에 보이는 多分히 遊戲의 人造作등은 韓國建築의 意匠上 特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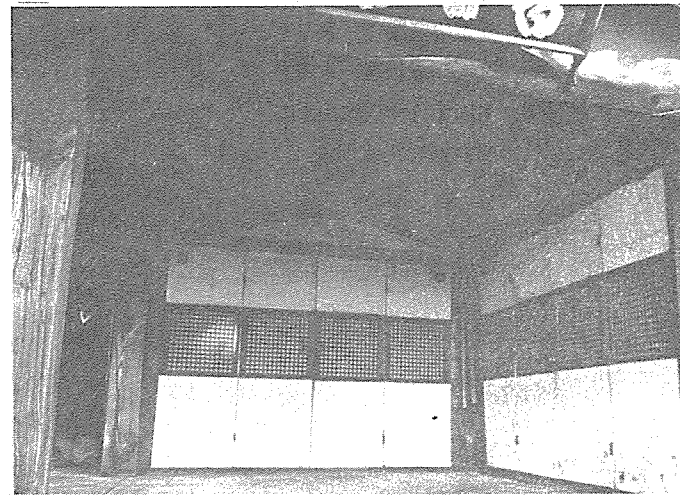
넷째로는 挾地의 妙와 환경의 仙味를 들 수 있다. 當時流行하던 風水說에 따라서 子孫萬代에 福을 누릴 吉地를 挾한 탓에 上流住宅의 立地는 仙境속에 자리잡고 있다. 또 대지内에는 연못을 두고 후자를 지으며, 蓮塘이 없는 경우에도 別堂을 住居環境을 일단 돋보이게 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정원은 細心히 造成하지 않더라도 家宅을 象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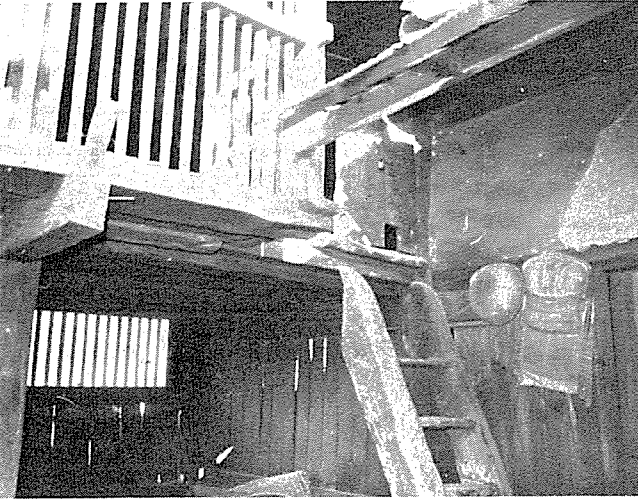
安東義城金氏宗家



月城香壇



月城孫東滿氏사랑재



月城香壇다락



月城觀稼亭

는 巨木이나 값진 草木으로 家構周邊을 點綴하여 生氣를 돌우고 있다. 이러한 上流住宅의 優秀性은 住宅이 人間의 情緒生活에 미치는 영향面을 考慮할 때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5. 別堂建築에 於하여

上流住宅에 附屬된 別堂建築은 韓國建築의 情趣와 細部構法의 精巧함이 잘 나타나 있는 建物이다. 現存한 本체 建物과 같이 並存하고 있는 別堂은 많은 數에 이르고 있으며 그中 불 만한 것 은 다음과 같다.

江陵般橋莊 活來亭
 安東臨淸閣 君子亭
 達城朴滉氏家 太古亭
 永川鄭氏永氏家山水亭
 醴泉 权氏宗家別堂

이밖 에 본체 는 없 지만 別堂만 獨立해 있는 建物은 懷德同春堂, 月城無忝堂, 永川, 崇烈堂 江陵海雲亭, 安東蘇湖軒등이 있어 모두 珠玉같이 아름다운 建物이다.

이 別堂建築은 住居内에서는 사랑채의 延長으로 家長의 多目的인 用途로 錫여졌다. 接客, 讀書, 閑遊, 觀賞등의 目的에 있었음으로 그 址地는 항상 이에 알맞은 景勝地를 挾하고 人工運塘과 築山으로 環境을 造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住居内에서 生活機能도 重要하였지만 그 地域社會에서 共同對話의 處所로 또는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中心으로서의 모든 役割을 行한 것으로 이 建物の 機能은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別堂建築은 그 當時의 建築術의 精粹를 기울여 建築되었기 때문에 韓國建築研究에는 빼놓을 수 없는 貴重한 遺産이다.